

全經聯社貢 第 0173 號
受 信 사회공헌담당자
제 목 「全經聯1%클럽」 가입안내

2001. 6. 20

[직인생략]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본회는 기업의 생산적·미래지향적 사회공헌활동의 전개를 통해 상생적인 기업-사회관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경제계 공동의 활동으로 결집코자 지난 3월 14일 「全經聯1%클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회가 지난 '99년 전경련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상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선진국에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인식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채널이 구축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회는 「全經聯1%클럽」 활동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종합·결집하고 이 「나눔의 문화」에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과 국민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을 제고코자 하오니 저희 「全經聯1%클럽」의 취지에 동감하는 회원사의 많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 관련문의 : 전경련 사회공헌팀 이소원/정성래 (Tel. 3771-0377/0316)

- [별첨] 1. 「全經聯1%클럽」 개요, 1부
2. 「全經聯1%클럽」 입회신청서, 1부
3. 「全經聯1%클럽」 가입회원 명단, 1부

全 國 經 濟 人 聯 合 會
常勤副會長 孫 炳 斗

담 당	사무처장	이사장
<i>ph</i>	<i>in</i>	<i>CS</i>

2001. 6. 21
접수번호 13

〈별첨 1〉

「全經聯1%클럽」

I. 취 지

- 기업과 일반국민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범사회적 확산과 참여 분위기를 고양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범국민적 나눔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가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상을 만들어 가고자 함
-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의 구축이 필요함
- 「全經聯1%클럽」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종합·결집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함

II. 가입대상

- 가입대상 : 개인회원, 법인회원, 특별회원
 - 개인회원 : 가처분소득의 1%이상을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할 의사가 있는 개인
 - 법인회원 : 경상이익의 1%이상을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할 의사가 있는 법인
 - 특별회원 : 비영리재단 및 공익성을 띤 공공단체

〈별첨 3〉

「全經聯1%클럽」 가입회원 명단

2001년 3월 14일 현재(109개社)

회 사 명		
경남기업(주)	삼성에버랜드(주)	유한킴벌리
경방	삼성전기(주)	이건산업(주)
경방육영회	삼성중공업(주)	인크루트(주)
고려학술문화재단	삼성증권	일광실업(주)
고속도로관리공단	삼성코닝(주)	일진엔지니어링
국민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전능시스템
국제전략경영연구원	삼성SDS	전북은행
네오콤코리아	삼양사	제일제당(주)
녹십자	삼영전자공업(주)	조흥은행
대상문화재단	삼우EMC	코오롱 건설(주)
대성약품(주)	삼환기업(주)	태양전장상사(주)
대신송촌문화재단	서원유통	태평양
대우정보시스템(주)	선진통운(주)	태평양복지재단
대우캐피탈	세방기업(주)	파라다이스문화재단
대한항공	송학재단	파라다이스복지재단
대흥	수석문화재단	포항종합제철(주)
도움넷	신동방	풍산
동부한농화학(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동아건설	신성이엔지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동아제약	신세계백화점	한국고등교육재단
동양화재해상보험(주)	신흥증권(주)	한국다우코닝(주)
두산	쌍용건설(주)	한국마케팅연구원
듀폰	쌍용자동차(주)	한국바스프
디지털조선애드	아남반도체	한국정보문화센터
롯데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한국주택은행
롯데장학재단	아시아나항공(주)	한국타이어복지재단
롯데제과(주)	애경산업(주)	한국파마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판매교육원
부산은행	SK텔레콤	한솔그룹
부영	에스콰이어	한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엔커뮤니케이션즈	한진중공업
삼보컴퓨터	LG복지재단	한진해운
삼부토건(주)	LG상록재단	한화그룹
삼성문화재단	LG연암문화재단	화승
삼성물산(주)	용강유업(주)	효성
삼성복지재단	우경산업(주)	
삼성생명보험(주)	웅진닷컴	

<참고>

「全經聯1%클럽」 회원 명단

2001년 3월 14일 현재(109개社)

회 사 명	대 표 자
경남기업(주)	조병수
경방	김각중
경방육영회	김각중
고려학술문화재단	박용정
고속도로관리공단	조건창
국민은행	김상훈
국제전략경영연구원	이왕열
네오콤코리아	오치우
녹십자	허영석
대상문화재단	임창욱
대성약품(주)	김재수
대신송촌문화재단	양재봉
대우정보시스템(주)	김용섭
대우캐피탈(주)	박석근
대한항공	심이택
대흥	이창범
도움넷	이경혜
동부한농화학(주)	우종일
동아건설	최동섭
동아제약	강신호
동양화재해상보험(주)	정건섭
두산	고종진
듀폰	터커M.콕존
디지털조선애드	오인석
롯데복지재단	노신영
롯데장학재단	노신영
롯데제과(주)	한수길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최원석
부산은행	심 훈
부영	이중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성수
삼보컴퓨터	이홍순
삼부토건(주)	정진우
삼성문화재단	이 실
삼성복지재단	이 실

회 사 명	대 표 자
삼성물산(주)	정우택
삼성생명보험(주)	배정충
삼성에버랜드(주)	허태학
삼성SDS(주)	김흥기
삼성전기(주)	이형도
삼성중공업(주)	이해규
삼성증권	유석렬
삼성코닝	박영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이수창
삼양사	김 윤
삼영전자공업(주)	변동준
삼우EMC	정규수
삼화기업(주)	손정무
서원유통	이원길
선진통운(주)	박성수
세방기업(주)	최인식
송학재단	임광정
수석문화재단	강신호
신동방	김영록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김경식
신성이엔지	김주현
신세계백화점	구학서
신흥증권	지승룡
쌍용건설(주)	장동립
쌍용자동차(주)	소진관
아남반도체	황인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정주영
아시아나항공(주)	박삼구
애경산업(주)	안용찬
에너지관리공단	김홍경
SK텔레콤	조정남
에스콰이어	이 범
엔커뮤니케이션즈	채갑병
LG복지재단	구자경
LG상록재단	구본무
LG연암문화재단	구자경
용강유업(주)	송무웅

회 사 명	대 표 자
우경산업(주)	이문수
웅진닷컴	윤석금
유한김벌리	문국현
인크루트(주)	이광석
이건산업(주)	박영주
일광실업(주)	김차서
일진엔지니어링	이재천
전능시스템	박용일
전북은행	박찬문
제일제당(주)	손경식
조흥은행	위성복
코오롱 건설(주)	민경조
태양전장상사(주)	강위동
태평양	서경배
태평양복지재단	전완길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진락원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조일묵
포항종합제철(주)	유상부
풍산	류 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윤남중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손길승
한국고등교육재단	최태원
한국다우코닝(주)	황경수
한국마케팅연구원	장대환
한국바스프	류종열
한국정보문화센터	김봉기
한국주택은행	김정태
한국타이어복지재단	조양래
한국파마	박재돈
한국판매연구원	권오근
한진	김인진
한진중공업	이우식
한진해운	김찬길
한솔그룹	남정우
한화그룹	김승연
화승	고영립
효성	조석래

0-BDO-15-6

원문을 보시려면 Acrobat Reader를 다운받으세요.

작성자

이소원

원문보기

주제명

1%퍼센트클럽

전경련 1%클럽 발족 예정

(문의) 사회공헌팀 이소원(3771-0377)

재계에서 자발적 분위기의 「나눔의 문화」 운동이 「전경련 1%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김각중)가 경제계의 다양한 사회봉사· 공헌 활동을 결집하는 「전경련 1%클럽」을 금년 하반기 중에 발족할 계획으로, 현재 회원 가입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전경련 회원사 뿐 아니라 비회원사 및 벤처기업 등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경련 1%클럽」은 '경상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하겠다는 발족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들의 모임이다. 운영을 위한 회비나 별도의 기금 출연 등은 전혀 없으며, 가입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전적으로 따른다. 9월 30일 현재 가입 신청한 기업은 삼성, SK, LG, 포철, 동아제약, 유한킴벌리 등 70여개사에 이른다.

전경련이 금년 초 발간한 『1999년도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응답한 147개 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상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하고 있으며, 5%이상인 기업도 3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통합· 조정기능이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경련은 「전경련 1%클럽」의 발족을 위한 기업들의 현실적인 기반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 현재 다양한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전경련은 「전경련 1%클럽」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종합, 결집하고 효율적 홍보 채널을 구축, 기업의 더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1%클럽'이란, 원래 영국에서 '불우한 이웃을 자발적으로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한 '1%클럽'이 먼저 구성된 후, 1990년 경단련 회원기업의 찬성을 얻어 기존 개인회원과 경단련 법인회원, 비회원 상장기업 모두를 포함하는 「경단련 1%클럽」을 정식발족했다. 1999년 말 현재, 미쓰비시상사, 도요타자동차, 일본IBM 등 281개의 법인과 1,352명의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법인회원은 경상이익의 1% 이상, 개인회원은 가처분소득의 1%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단련 1%클럽」은 지난 고베대지진 당시 클럽을 중심으로 기업과 시민단체가 협력, 대규모의 지원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경단련은 이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의 현안을 발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참여의 한 형태라는 인식을 정착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전경련은 이 사업과 관련, 오는 11월 1일 삼성, 한화, 신세계 등 3개사를 중심으로 기업 사회공헌 사례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BDO-15-1

원문을 보시려면 Acrobat Reader를 다운받으세요.

작성자

이소원

원문보기

010206.pdf

주제명

퍼센트클럽

전경련 1퍼센트클럽, 내달 발족

(문의) 사회공헌팀 이소원(3771-0377)

* 원문보기를 클릭하시면 붙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재계의 자발적 사회공헌 모임인 「전경련1%클럽」이 다음달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강신호 동아제약 회장)는 2월 5일(월) 오전 11시 30분 사회공헌위원회를 열어, 3월 14일(수)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1%클럽」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경련1%클럽」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업과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범사회적 확산과 참여 분위기를 고양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전경련1%클럽」 창립총회에는 현재까지 가입한 「전경련1%클럽」의 가입회원들을 비롯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 등을 선임한다. 특히 6년간(94년 5월~2000년 5월) 일본 경단련의 「1%클럽」 회장을 역임한 와카하라 야수유키(若原 泰之) 전회장(아사히생명 회장)을 초청해 일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특별강연을 듣고, 일본 경단련의 「1%클럽」의 간사를 맡고 있는 와다 류코(和田 龍幸) 경단련 전무를 통해 경단련 1%클럽의 활동에 대한 소개를 들을 예정이다. 또한 사회공헌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전경련1%클럽」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규정한 회칙과 구체적인 활동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고 총회를 통해 이를 확정짓기로 했다.

창립총회 이후 「전경련1%클럽」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계몽 및 홍보사업을 비롯, 조사연구 사업, 실행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의 사회공헌 협력 사업과 함께, 기업들간의 정보교류, 협력 사업, 외부로부터의 위탁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경련 1%클럽」은 '경상이익의 1%이상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하겠다는 발족 취지에 동의하는 법인들의 모임으로, 운영을 위한 회비나 별도의 기금 출연 등이 전혀 없으며, 가입 또한 전적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다. 2001년 1월 31일 현재 82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월 말까지 총회를 위한 회원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 날 회의에는,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신호 회장(동아제약)을 비롯, 손병두 부회장(전경련), 윤병철 명예회장(하나은행) 등 20여명의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과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붙임) 「전경련1%클럽」 가입회원 명단(2001년 1월 31일 현재)

1-BDO-15-2

원문을 보시려면 Acrobat Reader를 다운받으세요.

작성자

정성래

원문보기

010315.pdf

주제명

1%클럽

전경련 1%클럽, 창립총회 갖고 본격 활동 나서

(문의) 사회공헌팀 정성래(3771-0316)

* 원문보기를 클릭하시면 붙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경련은 3월14일(수) 11:00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1%클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전경련1%클럽』은 경상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모임으로서, 회비나 별도의 기금출연은 없으며, 가입도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창립총회에는 김각중 전경련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손길승 SK 텔레콤 회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윤병철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등 재계인사 1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1%클럽』 초대회장으로서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전경련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였고 운영위원으로는 윤병철 회장(한국기업에세나협의회, 우리금융지주회사), 이실 전무(삼성문화재단), 오종희 부사장(LG 문화재단) 등을 선임하였다.

한편, 창립총회에는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께서 특별히 참석하셔서 『전경련1%클럽』의 출범을 격려하셨다. 이희호 여사께서는 『전경련1%클럽』 출범이 우리 사회에 나눔의 문화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생의 정신으로 **선진복지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셨다.

또한, 일본 아사히 생명보험의 와카하라 회장(前 경단련1%클럽 회장)이 연사로 초청되어 『경단련의 1%클럽과 일본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제하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와카하라 회장은 강연을 통해 21세기에는 기업의 사회성과 윤리성이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기업평가의 주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업은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훌륭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경련1%클럽』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의 사회공헌 협력체제 구축, 사회공헌 정신 고양을 위한 계몽 및 홍보, 기업과 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기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자문 등이며, 사무국 역할은 전경련 사회본부 사회공헌팀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경련1%클럽』이 공식발족되어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일관된 프로그램이 부재한 가운데 이루어진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그리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았던 점을 어느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전경련1%클럽」 회원명단